

KIA 불펜 과부하, 장기 레이스 경고등 켜졌다

10경기 중 6경기 1점차 승부
최대 123개 던지며 피로 누적
정해영, 5경기서 무실점 1경기
불펜 관리·타격 회복 '관전'



KIA 타이거즈가 6월 초부터 연이은 1점차 승부속에 불펜 필승조의 체력 부담이 가중

되면서 시즌 상반기 '5할 사수'에 경고등이 켜졌다. 주요 타자들의 줄부상이 장기화되면서 타선 침체 속에 KIA는 '지키는 야구'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진 탓이다.

KIA는 최근 10경기에서 절반이 넘는 6경기가 1점차 승부로 펼쳐졌다. 경기 결과도 2승 4패로 초라하다. 타선 침묵에 1점차 승부에서 그동안 KIA의 뒷문을 지켜왔던 필승조의 잦은 등판으로 피로누적이 커지면서 좋지 않은 경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KIA의 필승조는 최지민의 제구 변수나 좌완 투수의 필요에 따라 이준영이 투입되곤 하지만 대체로 전상현-최지민-조상우를 연이어 투입한 뒤 정해영이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KIA 최초이자 KBO리그에서 15번째로 4년 연속 10홀드를 기록하며 100홀드까지 5홀드를 남기고 있는 전상현은 지난

10경기 중 6경기에 등판해 총 6이닝 동안 28명의 타자를 상대로 총 86개의 공을 던져 평균자책 3.86으로 2홀드를 기록했다. 한화전이었던 지난 6일과 7일 각각 2점차와 1점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 등판해 솔로 홈런과 잇따른 안타에 이은 희생플라이로 1실점씩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7일부터 12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던졌으나 점차 늘어나는 투구수 속에 제구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최지민과 조상우도 지난 열흘간 각각 6경기 61개와 4경기 66개의 투구수를 기록하고 있다. 5월 중순까지 삼진보다 많은 볼넷을 허용한 최지민은 6월 들어 1개의 볼넷을 기록하며 나아진 모습이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흔들리면 제구까지 흔들리다 보니 경기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14일 NC전에서 7회말 2사 1·3루 상황 등판해 최정원을 상대하던 중 3구째 던진 시속 145km의 직구가 헬멧을 강타했고 KBO 규정상 직구의 타자가 머리를 맞으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퇴장이기 때문에 최지민은 퇴장 명령을 받기도 했다.

조상우도 지난 시즌 44경기, 2021년 44경기에 등판한 것과 달리 올 시즌에만 벌써 35경기에 출전하는 등 체력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IA의 마무리 정해영은 많은 투구수

의 여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경기 중 5경기에 등판한 정해영은 6이닝 동안 123개의 공을 던졌고 평균자책 6.00을 기록하며 올 시즌(평균자책 2.91)과 비교해 크게 부진하고 있다. 삼성과의 홈 경기였던 지난 11일에는 구자욱과 김영웅에게 장타를 허용해 실점을 내줬고, 14일 NC전에서는 9회 말 무사 1·2루 상황에 등판해 김한별에게 안타를 내준 뒤 박건우에게 만루 홈런을 허용하며 대량 실점했다.

이 같은 불펜 과부하는 주전 타자들의 부상과 맞물리며 악순환을 낳고 있다. 현재 KIA는 중심 타선에서 활약하던 주전급 선수들이 잇따라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타격의 무게감이 크게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팀 타율(0.252)과 장타율(0.389)은 지난 시즌(팀 타율 0.301, 장타율 0.459)에 비해 눈에 띄게 하락했고, 경기당 평균 득점도 지난 시즌 5.95인 반면 이번 시즌 들어 4.59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 내내 치열한 접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득점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펜의 과부하는 장기 레이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KIA의 불펜 관리와 타격 부진 극복 여부가 향후 시즌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KIA 타이거즈 정해영이 지난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송정동초 야구부가 지난 12일 광주 첨단체육공원 야구장에서 끝난 2025년 제1회 비바스포츠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송정동초, 제1회 비바스포츠배 초등야구 우승

결승서 서석초에 10-9 승

광주 송정동초등학교 야구가 2025년 제1회 비바스포츠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송정동초는 지난 12일 광주 첨단야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결승에서 서석초를 10-9로 이기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10일부터 광주지역 6개 초등학교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송정동초는 수창초를 11-4로 대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송정동초는 결승서 서석초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1점차 승리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최우수선수상에는 송정동초 김도현이 선정됐고, 송정동초의 정우민은 우수투수상을 차지했다.

서석초 양레오는 10타수 8안타(타율 0.800)로 타격상을, 서석초 권선우는 홈런상(2개)을 받았다.

화정초 송하담과 서석초 손민준은 각각 최다도루상(7개)과 최다타점상(6타점)을 수상했다.

송정동초 정재열 감독과 명진 교장은 각각 감독상과 지도상을 받았다.

한편, 윤길중안과배 초등학교야구대회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12~13일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 환영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대구시체육회 등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로 더욱 강화된 달빛교류 성료

배구 등 4개 종목 120명 참가

광주광역시체육회와 대구광역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한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가 지난 12~13일 대구에서 열리며 배구·검도·족구·볼링 등 4개 종목에서 120명이 참가해 화합을 다졌다.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는 이번 교류전에서 광주 선수단이 대구 선수단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달빛교류를 더욱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수단은 12일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에 도착해 환영식을 가진 뒤 간송미술관을 탐방하고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대회는 13일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됐다. 배구에서는 광주체육중(전문체육)과 광주여성부(생활체육)가 승리했으며, 검도는 조선대(전문체육)와 광주훈성팀(생활체육)이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볼링은 남자일반부가 값진 승리를 따냈으나 여자일반부는 패했고, 족구는 아쉽게도 대구에 패했다.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는 2013년 달빛 야구교류대회를 모태로 출발해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된 해를 제외하고 양도시에서 격년제로 이어지고 있다.

전갑수 광주체육회장은 "광주와 대구는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지만, 체육 분야의 교류가 양 도시 화합을 더 강화하고 있다"며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가 후배 체육인들에게 이어져 지속 가능한 교류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전남 드래곤즈 유진홍, '음주운전' 적발... 60일 활동 금지

추후 상벌위원회 통해 정식 징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된 프로축구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의 수비수 유진홍(24)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의 정식 징계에 앞서 활동 금지 조치를 당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3일 유진홍에게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하는 활동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먼

저 경기 출장을 금지한 뒤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활동 금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 앞서 전남은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2일 밤 유진홍이 음주운전을 하고 (공격수) 유경민이 해당 차량에 동승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구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은 "관계 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진홍은 전남에서 지난해 K리그2 1경기를 뛰었다.

민현기 기자